

일본 교토대학의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

이지연

교토대학(京都大學)은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쿄대학(東京大學)과 함께 일본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손꼽힌다. 교토대학에는 총 10개의 학부(종합인간학부·문학부·교육학부·법학부·이학부·공학부·약학부·농학부·경제학부·의학부)가 있으며, 대학원과 부속 연구소, 교육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약 3,000명 정도의 교수진이 13,000여 명의 학부생과 8,000여 명의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다.

도쿄대학이 관료를 양성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면, 교토대학은 학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최초의 노벨물리학상을 비롯하여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SCI 논문 발표 수도 언제나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등 교토대학은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학문적 자유와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교토대학의 학풍에서 비롯된다. 교토대학은 학문의 주체 성과 자주성을 강조하여 인문학 분야의 ‘니시다철학’(西田哲學)을 비롯한 교토학파의 독자성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발표한 교토대학 교육이념의 말머리에는 “교토대학은 역사적으로 추구해온 학문적 자유를 계승, 발전시키고, 인류와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이념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연구에 있어 자유와 자주, 다양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교육적 환경 속에서 독립적이고 상호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은 학내 교육연구 조직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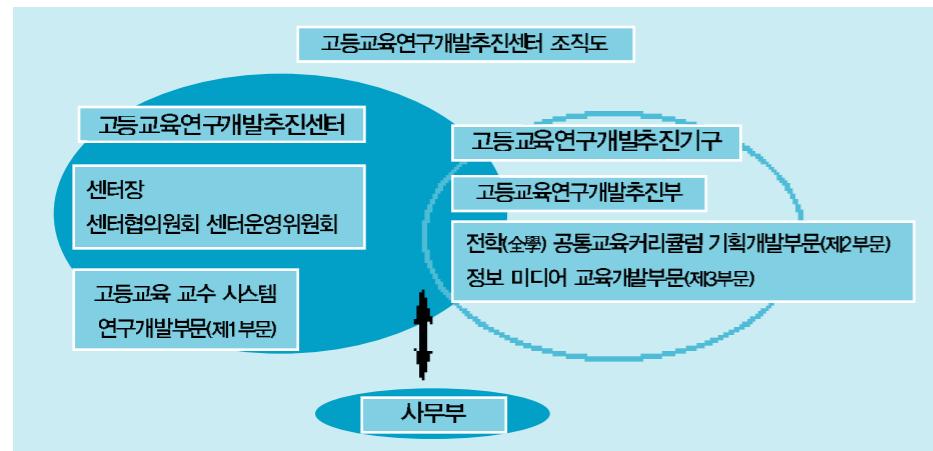


■ 세계 대학의 교수 학습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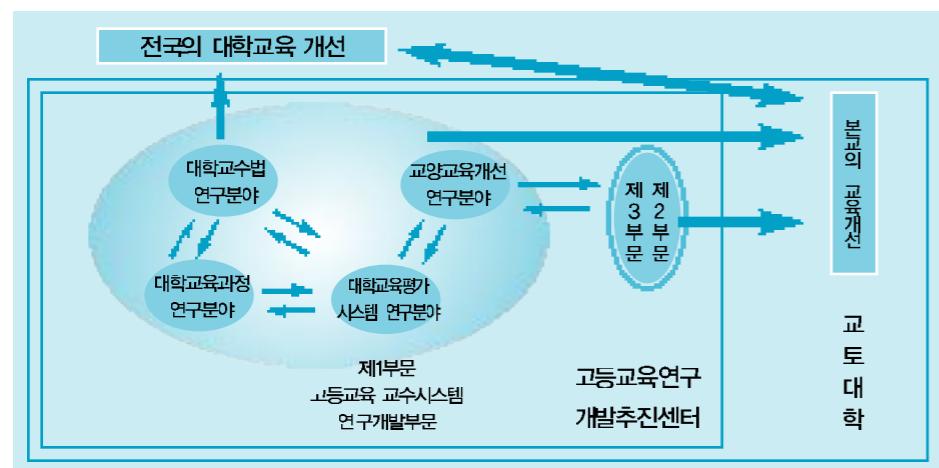
1. 교토대학의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

교토대학에는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는 기관이 서울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등교육센터는 크게 세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문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연구하는 ‘고등교육수업연구개발부’이고, 제2부문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학공통교육운영개발부’이다. ‘전학공통교육운영개발부’는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등교육센터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3부문은 e-Learning을 담당하는 ‘정보교육개발부’이다. 교토대학 고등교육센터는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달리 주로 교수자를 위한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부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1부문인 ‘고등교육 수업연구개발부’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어떤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둘째 ‘선택한 교육과정을 어떠한 교수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고안하며, 셋째 ‘실행한 결과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교토대학 학내는 물론 전국의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다.



1) 종합연수형의 Faculty Development

종합연수형의 Faculty Development는 교수진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업의 세세한 부분, 수업시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개수업검토회와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개수업검토회는 1년에 4~5차례 진행되는데, 수업 참관, 비디오 촬영, 학생들의 필드노트 작성 등을 통해 얻어진 관찰 결과를 토대로 교수자와 동료 교수들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을 진단한다.

2) 자기 진단과 발전을 강조하는 강의평가

교토대학은 각 학부마다 고유한 수업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수자의 자기 진단과 발전을 강조하는 ‘형성적(formative)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평가가 교원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 수업연구개발부는 학부의 위원회와 협력하여 수업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고등교육수업연구개발부에서 강의평가 문항들을 작성하여 제안하면, 교수진들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정을 거쳐 강의평가지를 만든다. 이는 학부마다의 학문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수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교육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예컨대, “이 수업에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요소 등을 쓰시오”라고 묻고 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수업에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이 단순한 재미 여부를 묻거나 만족스러운 학점을 받았는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라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은 강의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 하겠다.

3) 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교토대학 고등교육센터에서는 강의평가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강의평가가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배경과 강의평가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가 하면, 동일한 과목으로 개설된 여러 개의 강좌에 대한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교토대학의 교육을 진단한다. 이렇듯 개별 수업에 대한 1회적인 평가가 아닌,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세우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문적 자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수업 개선을 위한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토대학의 고등교육센터가 보여준 일련의 노력들은 서울대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종합연수형의 Faculty Development는 교수자의 수업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업 개선에 대한 교수들의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강의평가가 수업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수업을 개



교토대학에서 고등교육연구센터 담당자들에게 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전형준 CTN 소장, 민혜리 연구교수, 신지원(통역), 이희원 연구교수



선하는데 생산적인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교토대학의 고등교육센터와 각 학부 사이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5